

## 꾸준한 원자력 협력 기대

Philippe THIEBAUD  
주한 프랑스 대사



“

한국과 프랑스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R&D 분야와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인식도  
같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양국의 GEN 4와 ITER 와 같은  
미래의 원자력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신사 숙녀 내빈 여러분

저는 오늘 제 5차 한·불 원자력 산업 연차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동료들을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적게 하는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같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R&D 분야와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인식도 같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양국의 GEN 4와 ITER 와 같은 미래의 원자력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계에서도 EDF, 한수원 Areva, GDF Suez 등 많은 산업계가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통해서만이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0월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사르코지 대통령이 만나서 원자력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대화와 값진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